

점(지고의 영혼, 지식의 대양)과 점들(영혼들)의 만남.

오늘 밥다다는 다만 너희들 모두를 만나려고 왔다. 너희들은 이제껏 멀리를 많이 들어왔다. 전체 모든 멀리의 핵심은 단 한 마디 ‘점’(빈두)이라는 말에 들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 전체가 이 요점에 합쳐져 있다. 너희들 각자 점이 되었느냐? 점이 되어라. 점이 되어, 점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점(마침표)을 찍어라. 너희들 모두 이것을 쉽게 경험하지 않느냐?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이 핵심 요지를 이해함으로써 너희들 모두 미묘한 천사가 되어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로서의 배역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요점을 이해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중의 외국인인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너희 이중의 외국인들에게 그것이 쉬우냐, 아니면 곱절로 어려우냐? 밥다다는 이제 이 핵심요지의 화신이 된 너희들 모두를 보고 싶구나.

너희들 각자 신성한 거울이 되어, 모든 인간 영혼이 거기에 비친 각자의 시간의 세 측면을 완전하게 볼 수 있게 해라. 너희들은 이 세 측면을 비전으로 허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울들이냐? 거울에서 세 측면 모두를, 즉 그들이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이며, 미래에 무엇을 받을지를 뚜렷하게 봄으로써 그들은 쉽게 아버지에게 끌릴 것이며 그에게서 각자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올 것이다. 그들이 이 비전을 보면, 즉 마치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를 알아볼 때,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자기들이 여러 생 동안 갈구하고 소망해온, 해방의 거주지와 천국에 가고자 하던 소망이 이제는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쉽게 이끌려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런 영혼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신봉자 영혼들은 사랑에 잠겨 있기를 원하고, 나머지들은 빛 속에 합쳐지기를 원한다. 두 가지 유형 다 합쳐지기를 원한다. 그런 영혼들에게 1초에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들려주면서 그들이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너희는 그들이 관계를 통해 사랑에 합쳐져 있는 단계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은 ‘잠겨 있다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현재의 때에 영혼들이 사랑에 잠겨 있는 경험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합쳐지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미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너희의 과제가 쉽사리 달성될 것이다. 다른 영혼들을 트리칼다르시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너희가 그 정도로 신성한 거울들이 되었느냐. 이 거울을 통해서 너희 노력의 결과를 매 순간 순간 사진으로 찍어서 너희가 강력한 상태를 지속했는지, 아니면 낭비적인 데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보아라. 너희는 낭비적인 자세와 강력한 자세, 양쪽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강력한 자세이겠느냐? 변함없이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자세다. 낭비적인 자세란 어떤 것이겠느냐?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전사의 자세일 것이다.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지 않고, 너희는 전쟁터에 서 있을 것이다.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공의 형상이 된다는 뜻이고,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은 애쓰는 모습이 된다는 뜻이다. 너희는 심지어 사소한 일에도 애를 쓸 것이다. 하나는 기억의 화신이 되는 것, 다른 하나는 불평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너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그때는 너희가 남들에게 시간의 세 측면에 대한 비전도 허락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거룩한 거울들이 되어라. 이해하느냐?

오늘 바바는 2중의 외국인들과 구자라트에서 온 자들을 만나셨다. 양쪽 모두 조화를 이루며 춤추고 있다. 저 사람들도 춤추고 이 사람들도 역시 춤을 많이 춘다. 구자라트 출신들은 사랑의 화신이고, 2중의 외국인들도 역시 경험하는 사랑으로 인해 이리로 달려온다. 지식을 받고 있으면서 너희는 사랑도 역시 받아왔다. 이 영적인 사랑이 너희를 신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사랑을 2중으로 받는다, 즉 아버지에게 사랑 받고 또 가족에게도 사랑 받는다. 사랑의 이 경험이 너희들을 나방으로 만들었다. 외국인들에게 사랑은 자식과 같은 구실을 한다. 사랑으로 인해 너희는 무슨 애기든 들을 태세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죽을 준비까지도 되어 있다. 이 죽음을 너희들은 좋아하지 않느냐? 이 죽음은 너희가 천국에 간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누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가 천국에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지만, 합류시대에 죽는 자들은 정말 천국에 간다. 어떤 이가 죽어서 몸을 떠나면 신문들은 이를 본 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기사를 신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죽음을 좋아하지? 너희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따라 죽었다. 이 집회 전체가 산 채로 죽은 자들의 집회다. 너희들의 호흡이 아직도 낡은 세상의 어딘가에 붙들려 있지는 않겠지? 이미 죽은 자들이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걸 보니 정말 멋지구나. (바바 말씀에 외국인들이 웃고 있었다.)

기독교 철학에서는 시체가 부활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쓰여 있다. 먼저 시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생한다. 이 죽음에는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두려움은 없지?

다디들을 만나심.

지금 서틀 리전에는 마하비르들의 특별집회가 있다. 이 집회가 왜 있는지 아느냐? 수립의 초창기에 밥다다가 완성된 브라마를 비전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에게 봉사했듯이, 지금 이때에도 역시 바바는 너희들의 특별한 여덟을 통해서, 너희의 특별한 신인들의 모습과 샹티들의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줌으로써 봉사하고 있다. 너희들은 육신을 사용해서 신을 위해 물리적으로 봉사하며 바쁘지만, 특별하고 고귀한 영혼들은 지금 2중으로 봉사하고 있다. 처음에 브라마를 통해서 야기야가 커졌듯이 지금 이때도 역시 쉬브 샹티인 너희의 결합된 형태의 비전을 통해서, 너희들의 미묘한 몸을 통해서, 비전을 주고 메시지를 전하는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특별한 자녀인 너희들을 봉사하는 데서 협조적이게 만들고 있다. 이 미묘한 봉사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집회는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마하비르 자녀인 너희들은 그 어떠한 카르마의 굴레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이 지내며 매 행동을 행하는 동안 더블 라이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미래에는 아버지가 너희를 여러 번 서틀 리전에 나오게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 봉사하고 있는 것을 많은 이들이 경험할 것이다. 2중으로 봉사하는 이 역할을 너희들은 지금 행해야 한다. 너희 특별한 자녀들을 함께 불러모음으로써 밥다다는 신봉자 영혼들과 과학자들, 양쪽 모두에게 터칭을 줌으로써 계속해서 봉사한다. 바바는 그 영혼들을 특별한 신봉의 산스카르로 채워서, 그들이 반 사이클 동안 신봉의 길이 지속되게 만들도록 해주고 있다. 그는 또 과학자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또 정교한 기계들을 만들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고취하고 있다. 그 기계장치들이 완성되는 즉시, 완성된 영혼인 너희들은 그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과학자들 자신은 그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양쪽의 봉사가 모두 서틀 리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하느냐?

너희는 하루 전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틀 리전의 주민으로 지내느냐? 아니면 너희가 몸으로 해야 하는 봉사 시간이 더 크냐? 너희들 모두가 얼마나 바쁘든, 아버지는 어쨌든 그의 일을 마친다. 너희들의 완성된 형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이 천사가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역시 각자 완성된 천사의 모습이 있다. 육신의 존재인 너희들 모두 등수대로 천사가 될 것이다. 천사가 된 후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나으냐, 아니면 너희의 육신을 바꿔서 다음 번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편이 더 나으냐? 선발대에 속하는 자들은 그들의 육신을 이미 바꿨고 그 몸들을 가지고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육신과 천사의 몸, 양쪽이 결합된 상태로 마지막까지 그들의 배역을 연기할 것이다. 너희의 배역은 무엇이나? 일부는 선발대의 일부가 되어서, 나머지는 그들의 미묘한 몸을 통해 봉사함으로써 그들의 배역을 연기한다. 양쪽의 역할 모두 중요하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양한 각 역할들이 다 대등하게 중요하다. 선발대의 과제 역시 덜하지 않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히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다. 거기에도 역시 널리 알려진 영혼들이 있다.

아비약트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1) 너희들 모두 끊임없이 보석들처럼 빛나느냐? 보석은 한결같이 반짝인다. 보석인 너희들은 각자가 참으로 귀중하다!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속하므로, 인간들은 너희에게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보석인 너희들은 참으로 귀중하다. 아버지에게 속하는 자들은 대단히 귀중한 보석들이 된다. 너희는 온 세계 전체에서 가장 고귀한 영혼들이 되었다. 너희가 이 만큼의 행복을 느끼느냐? 너희들은 항상 육신의 직업을 기억하는데, 마찬가지로 영혼의 직업도 잊지 마라. 합류시대의 최고로 높은 행운은 아버지의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보석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행운을 너희가 어찌 잊을 수 있느냐? 너희들 모두 봉사에 협조한다. 너희들은 만능의 봉사자들이다. 봉사할 기회를 받는다는 것 역시 드라마에서 승강기의 하나다. 이 야기야(회생의 불)에서 너희가 봉사를 더 많이 할수록 너희는 자동적으로 성취의 프라사드(성스러운 공양물)를 더 많이 받는다. 너희는 또 장애 없이 머문다. 한 번 봉사하고 그 봉사에 대해 천 배의 결실을 받는다. 영혼들에게 물리적으로 또 미묘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여주어라. 누군가를 충족시키는 일은 매우 큰 봉사다. 누군가를 후히 대접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행운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직 복 많은 자들만이 손님을 맞이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2) 마야를 알면서도 너희들 모두 그녀를 모르는 상태로 지내느냐? 신인들은 마야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순진하다. 마야라는 이름과 흔적이 전부 다 사라지도록 너희는 마야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마야가 너희의 손님이 되는 일은 결코 없지? 너희의 문이 마야에게 영원히 닫혔느냐? 너희의 요새가 굳건할 때는 그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다. 벽을 높이 쌓았다는 것은 고귀한 단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너희의 단계가 낮아지게 하지 마라. 너희가 일단 바바에게 속하면 ‘나의 것’이라는 다른 의식은 전부 다 끝나야 한다. 애착은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그럴 때 어떻게 애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악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제 자신을 유한한 피조물이라 여길 때다. 형제라는 의식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그 어떤 악덕도 만들어질 수 없다.

3) 너희들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사라 여김으로써 끊임없이 마야에게 승리하느냐? 앉아 있거나 먹고 있을 때, 일상의 활동을 하는 동안, 걷거나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너희는 마야와 싸우고 있으면서 승리한다. 너희가 겉으로는 뭘 하고 있든, 내면에서는 마야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세계 왕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를 알려지지 않게 만든다. 이것은 너희를 알려지지 않게 만들지? 계시가 일어나면 그때는 너희를 보는 모든 이가 너희들이 누구이며 뭘 하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전능한 권위자와 함께 머무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다. 판다바들의 주님은 전능한 권위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판다바들은 항상 승리했다. 이 동반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너희가 혼자일 때는 마야가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 마야가 너희에게 항복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마야는, 마야의 정복자인 너희들의 하인이 되어 경의를 표할 것이다. 마야의 델라(장터)에서 너희의 동반자 아버지를 놓치지 마라. 너희의 동반자를 놓치면 너희는 길을 잃고 그러면 소리쳐 불러야 한다. 끊임없이 마야가 너희에게 경의를 표하게 만들고,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라.

축 복: 매우 부유하고 지각 있게 되어 갖가지 힘을 다 사용함으로써 발전해라.

지각 있는 자녀들은 과제를 위해 힘을 골고루 다 쓰는 법을 안다. 너희가 힘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 힘들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서 뭔가를 얻고 너희를 칭송해 노래 부를, 그렇게 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라. 그것이 해방이든 삶 속의 해방이든 너희는 반드시 모든 이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 신의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힘들을 저축해라, 그리고 이제껏 너희가 축적해온 힘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결하는 데서, 슬픔과 평화롭지 못한 데서, 해방시켜라.

슬로건: 순수한 생각을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너희의 보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보물들로 풍족해질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